

전남 중부권

나주시 롯데마트 건축허가

지역 영세상인 들끓는다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 구성 시청광장 집회

나주시가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 지역 영세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는 롯데마트 개발시행사인 C신탁개발이 지난 7월 나주시 송월동 인근 상업용 부지에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최근 이를 승인했다.

롯데마트 나주점의 건축허가 규모는 대지 5486㎡에 연면적 4076㎡(1232평) 규모로 지상 1층은 주차장 용도이며, 2층은 식품과 생활용품·의류매장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나주시가 이 같이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를 최근 승인하자 지역 영세상인들이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 적극 반발하고 있다.

'롯데마트 입점 저지와 영세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시민대책위' 회원 1000여명은 28일 나주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마트 입점은 영세상인들의 생존 수호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입점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나주 지역경제가 인구유출 심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까지 들어선다면 영세상인들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삶의 터전을 잃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연간 재래시장 7곳과 맞먹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마트가 연내 영업을 개시할 경우 800여 개의 주변 영세상가가 공멸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대기업의

'싸움이 식' 돈벌이 형태를 비난했다. 특히 "대형 마트의 경우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 환원 사업은 매출액 대비 0.01~0.31%에 불과해 지역 자본유출문제가 심각한 상태"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나주시가 타 지자체와 달리 힘 한번 못쓰고 롯데마트 입점을 허가한 것과 지난 19일 나주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한 '전통 상업지역 보호 지정거리 확대' 조례 개정안마저 보류된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시민대책위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상인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와 컨설팅 확대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히며, 롯데마트 입점 저지에 나주시민들이 동참해 주길 호소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하얀 메밀꽃 장관 연출

장흥군 회진면 선학마을 메밀꽃단지내에 하얀 메밀꽃이 '소금을 뿌려 놓은 듯'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선학동 메밀꽃 축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다. <장흥군 제공>

"첫 아기 울음소리, 정말 기뻐요"

강진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19일만에 출생

강진군이 강진의료원에 정부지원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한 지 19일만에 첫 아기가 출생, 화제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의료원내 산부인과에서 지난 23일 오전 10시 37분 김승호(41)씨와 이선영(36)씨 부부의 3.4kg의 건강한 첫째 여아가 태어났다.

이는 지난 5일 개원한 분만산부인과에서 19일 만에 첫 아기 출생이다. 또 현재 6명의 산모가 입원중이어서 조만간 출산소식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첫 아기를 받은 문영주 산부인과 과장은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첫 아기를 내 손으로 받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강진의료원은 이번에 태어난

첫 아기에겐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덕담과 함께 꽃바구니와 출산용품을 전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동안 강진군은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전국 1.2의 성과를 거뒀으나 관내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목포, 광주 등지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한편 강진 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12억5000만원의 지원받아 전문의 3명과 간호사 8명을 확보하고 태아검사기 등 20여 종의 최신 분만장비를 갖춰 지난 5일부터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시작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주민 의견듣고 예산 깎는다"

장성군, 읍·면 순회 '주민참여 예산설명회'

장성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군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1~28일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2012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민선 5기 들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이 직접 주관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 예산현황 등 정확한 재정실態와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민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군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1일부터 30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군은 이번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 해당 읍·면별로 예산지원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비서실장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설치한 '직소 민원실'을 통해 건의된 현안 민원과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내실있고 알뜰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건의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광산소방서, 노인 대상 인명구조 소방훈련

광산소방서는 지난 26일 송정동 소재 노세노세요양병원에서 각종 재난 및 화재발생 대비 초기 대응 및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루는 요양병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며 "평상시 관계자들이 화재예방 등을 숙지해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대기자 wtkee@

화순군 '숲 유치원' 운영

화순군은 기존의 주일식 교육이 아닌 자연속에서 뛰어놀며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유아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 푸른 숲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숲 유치원'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27일 관내 어린이집 3개소와 '숲어린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안병택 군 산림소득과장은 "내년도는 더 많은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은수기자 unsu@

전북

도청 광장 집회 제한 논란

전북도 "과격시위 배제"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단체 "공공장소 금지 헌법위배... 즉각 폐기해야"

전북도청 광장시위나 집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전북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싸움은 전북도가 이달 초 '전북도 청사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중고·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종전의 조리에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해 개정한다는 6조(사용제한) 3항 때문이다.

전주 시민회는 지난 27일 '김원주 도지사는 역사가 두렵지 않나?'라는 성명서에서 "광장은 민주주의와 주민 소통을 위한 공공의 장소"라면서

"집회 및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도청광장을 개방하라"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변경했다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가 이를 신고제로 전환했다"면서 "어디까지도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가 오세훈 전 시장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표현방법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허가제 등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 장소 등에 대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공적 광장은 다양한 의견을 논하기 위한 장소이며 이 장소의 집회를 규제하려면 필수불가결한 공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전북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헌법과 집시법 등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며 "오는 11월에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서울광장은 시청 뒤편이고, 전북도청 광장은 청사안의 공간이므로 비교 대상이 다르다"면서 "무조건 집회를 못하게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과격한 시위만을 배제하려는 임의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주 한스타일 특구'·'순창 건강장수 특구' 포상

'전주 한(韓)스타일 산업특구'와 '순창 건강장수 과학특구'가 지식경제부 주관의 지역특구발전 평가에서 장려상과 함께 포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전주 한스타일 특구'는 한스타일진흥원, 전주비빔밥 등 한식을 활용한 축제 활성화를 통해 연간

350만 명이 한옥마을 방문해 2000억 원의 관광 수입을 올린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 건강장수 과학특구'는 건강장수연구소와 건강장수 아카데미 설립 등 기반시설사업을 통해 기업 유치와 체험관광을 이끌어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새만금 걷기대회 내달 8일 개최

'군산 새만금 걷기대회'가 10월 8일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열린다. 군산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북도 걷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6km, 12km, 20km, 33km, 66km 등 5개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33km 코스는 비응도항에 설치

된 스타트 존을 출발해 해넘이 휴게소~돌고래 휴게소를 거친 뒤 신시도 기념탑을 반환점 삼아 돌아오게 된다. 또 66km 코스는 행사당일 새벽 4시에 군산 새만금산업 전시관에서 출발해 부안 새만금전시관까지 갔다가 돌아온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시민·공무원 대상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

정읍시는 다음달 26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대표상품 개발 등 정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공모 참여회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jeongeup.go.kr), 우편(정읍시 총정로 234 정읍시청 기획예산과), 전자우편(un0191@korea.kr), 팩스(063-539-6504)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창 농악 '고깔 소고춤' 서울무대 오른다

호남 우도농악을 대표하는 고창농악의 '고깔 소고춤'이 서울 무대에 오른다.

고창농악(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을 전승하는 고창농악보존회(보존회장 이명훈)는 유네스코 무용협회 한국본부가 주최하

는 '제14회 서울 세계무용축제'에서 전통문화공연으로는 유일하게 공연한다. 이에 따라 고창농악 보존회가 '고깔 소고춤'을 무대양식으로 재구성해 10월 10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선보인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



호남평야 풍요의 농경문화

'제13회 김제 지평선축제' 오늘 개막

호남평야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농경문화 축제가 김제에서 열린다.

김제시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한국 최고(最古)·최대의 저수지 독인 벽골제와 시내 일원에서 '제13회 김제 지평선축제를 개최한다.

'하늘과 땅, 사람이 빛어내는 최고의 명품'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농경문화 체험 ▲전통문화·예술행사 ▲쌀 테마행사 등 7개 분야에서 71개 프로그램으로 대동 어울림과 체험에 중점을 뒀다.

29일 오후 6시 벽골제 특설무대에서 각계 인사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의 너른 들관을 만들었던 생명의 젖줄 지평선 이야기, 지역 출신 가수 현숙과 시민이 함께하는 개막식 공연으로 시작된다.

상설행사인 전통 벼수확과 탈곡 등 가을걷이, 새참 먹기, 허수아비 체험, 짚 공 차기, 대나무 낚시, 메뚜기 잡기, 달구지 타기, 연날리기 등 농경·시골체험 프로그램은 축제의 백미다.

농경 5종 체험을 비롯해 새총 쓰기, 새끼 꼬기, 가마니 짜기, 전통가옥체험, 명인학당 선비문화체험, 짚 공예 등의 전통놀이와 시골 음식 맛보기, 쌀막걸리 시음회도 열린다. 또 지평선 가요제와 전국 청소년 가요제, 가족 음악회, 초중고 백일장 대회, 열린음악회, 인형극, 전국농악경연대회, 쌍룡 핫볼 놀이, 입석줄다리기 <사진> 등이 흥을 돋우며 농산물 장터, 농기계·농자재 전시도 상설 운영된다.

특히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벽골제 앞 광장에서 제13회 축제와 벽골제 길이(3.3km)를 상징해 1333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참여하는 333m의 띠(절편)를 김제산 살 38가마로 만든다.

특히 김제시는 최근 세계 축제 협회(IFEA)의 '세계 축제도시' 지정에 이 축제를 신청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평선축제는 기억의 한 편에 차곡차곡 쌓인 그리움을 꺼내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보물상자로 만들어 볼 기회"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임피향교 석전대제

군산시 임피향교는 지난 28일 대성전에서 지역주민과 관원유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현(先聖先賢)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